

# 땅과 집의 이름을 우아하게 하는 일

이 종 목\*

## I. 머리말

땅의 이름은 그 유래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대개 그 형상을 본 떠 지은 것이 많을 것이다. 姜希孟은 산이 뿔죽하면 馬耳山이라 하고 물이 구불구불 흐르면 巴江이라 부른다고 하였다.<sup>1)</sup> 실제 섬이 넓으면 뱀섬이나 너섬이라 하고, 바위가 서 있으면 선돌이라 부른다.<sup>2)</sup> 섬이 오리처럼 생겼으면 오리섬[鴨島]이고,<sup>3)</sup> 봉우리가 매처럼 생겼으면 매봉[鷹峯]이며, 바위가 범처럼 생겼으면 범바위[虎巖]고 두꺼비처럼 생겼으면 두딴바위[蟾巖]며, 수리처럼 생겼으면 수리바위[鶴巖]가 되었다.<sup>4)</sup>

또 대부분의 지명은 원래 우리말로 불리다가 어느 시기인가에 한자로 바뀌어 표기된 것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신라 景德王이 고을의 이름을 한자로 바꾸었는데 이를 두고 조선의 正祖는 策問에서 야만을 문명으로 바꾸고자 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今古山川之名，放形似而揭之者誠多，山尖而名馬耳，水屈而號巴江者 皆其類也.”(姜希孟, 『梳山彎溪精舍記』, 『私淑齋集』 2:105). 이하 따로 밝히지 않는 문집류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 DB를 따른다.
- 2) 우리나라에 선돌 혹은 선바위라는 지명이 많은데 대개 立石이라 적었다. 두모포의 선돌개[立石浦]가 대표적인데, 근대에 사라졌지만 선바위가 한강 물가에 있었다.
- 3) 鴨島는 장항 습지에 있던 섬으로 鳬島라고도 하였다. 南孝溫, 崔岾 등이 이곳에 살았다.
- 4) 한양에서 널리 알려진 예로 鷹峯은 응봉동에, 鶴巖은 상암동에, 蟾巖은 후암동에 있었다. 虎巖은 관악산의 서쪽 봉우리인 삼성산에 있다.

는 뜻[意出變夷]이라 한 바 있다.<sup>5)</sup> 땅의 이름을 우아하게 한자로 바꿀 때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삼개가 三浦 혹은 麻浦로,<sup>6)</sup> 三田渡가 麻田渡로 표기된 데서 보듯이 음과訓을 적절히 차용하였다. 그러나 한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끔 유래가 알기 어렵게 된 지명도 있다. 汝矣島는 仍火島, 仍火島, 火島, 汝火島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전라도 서남해의 仍島를 넘섬이라 부른 것을 보면, 여의도는 넘섬 혹은 너섬이라 부르던 것을 한자로 바꾼 것이라 하겠다.<sup>7)</sup>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우아함을 숭상하여 땅의 이름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기를 좋아하였다. 華陽洞은 본디 黃楊木이 많아 나서 黃楊洞이라 하였는데 李春英이 사소한 식물을 가지고 이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여겨 이렇게 바꾸었다.<sup>8)</sup> 華陽洞은 신선이 사는 곳을 이르는 말인데, 묘하게도 훗날 宋時烈이 은거의 장소로 삼으면서 ‘中華의 별’이라는 상징과 부합하게 되었다. 또 조선 문인에게 가장 흠모의 대상이 된 陶淵明으로 인해 그 지명을 바꾼 곳도 많다. 경기도 지평에 가마소가 있는데 가마솔처럼 생겼다고 하여 釜淵(釜潭)이라고 하고 물이 검게 보인다 하여 玄淵이라고도 하였다. 鄭百昌은 歸去來의 뜻을 넣어 歸去淵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sup>9)</sup> 이 일을 두고 金昌協, 宋時烈 등 당대 명현들이 글을 지었는데 송시열은 歸去淵이라는 문자가 매우 아름답고 도연명의 고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욱 좋다고 칭송한 바 있다.<sup>10)</sup>

이처럼 옛사람들은 자신이 인연을 맺은 땅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어 쓸 때가 많았다. 더 나아가 땅의 이름을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의 호로 삼기도 하고 또 집의 이름으로 삼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땅의 이름을 우아하게 바꾸는 일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시

5) 正祖, 「墜勢」(『弘齋全書』 263:269).

6) 三江이 京江 전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마포 앞쪽의 한강만을 지칭할 때도 제법 있다.

7) 羅衣洲라고도 하였는데 ‘너섬’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8) 李春英, 「芭串泉石之勝, 甲於湖西, 而洞名目以黃楊, 蓋多此木故也. 余以爲小物不足以爲號, 改作華陽. 其上又有仙游洞云」(『體素集』 66:360).

9) 金昌協, 「送李伯祥歸歸去淵序」(『農巖集』 162:144).

10) 宋時烈, 「與金仲和」(『宋子大全』 111:219). 송시열은 따로 「歸去淵記」(113:92)를 지었는데 李濟臣과 그 후손 李徵明의 은거를 칭송한 글이다.

대 문인들이 땅과 집의 이름에 담고자 한 뜻을 살피고자 한다.<sup>11)</sup>

## II. 땅 이름을 우아하게 바꾸어 호로 삼은 사람들

조선시대 京江은 구역에 따라 이름이 따로 있었다. 漢江은 오늘날 한남대교 일대를, 龍山江은 원효대교 일대를, 西江은 서강대교 일대를 가리킨다. 또 송파나루 일대는 松坡江(松江, 坡江, 蘇坡江이라고도 한다), 노랑나루 일대는 鷺梁江(露梁江으로도 적는다), 동작나루 일대는 銅雀江 혹은 黑石江, 마포 앞쪽은 玄石江, 양화나루 일대는 楊花江 혹은 巴江, 投金江이라 불렀다. 그 중 巴江처럼 호로 사용된 바도 있는데 그곳에서 산 金斗南, 柳儼 등의 호가 巴江이다.<sup>12)</sup>

또 丁若鏞은 『雅言覺非』에서 조선 선비들이 浦를 湖로 잘못 사용한다면서 그 예로 蘓洲(독섬)를 東湖, 氷庫를 氷湖, 동작을 銅湖, 마포를 麻湖, 서강을 西湖라 부르는 예를 들었다. 정약용이 들지 않았지만 용산 일대를 龍湖, 현석동 앞쪽은 玄湖, 마포 일대는 三湖(麻湖라고도 적는다)라고 불렀다. 또 두모포 앞쪽은 斗湖라 하였는데, 양천향교 근처 斗巖이라는 바위가 있어 그 앞쪽도 斗湖라 하였다. 鴨鵝亭의 명성으로 인해 동호 대신 鵝湖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또 奉恩寺 동쪽에 예전에 楮子島였기에 楮湖라 하였다.<sup>13)</sup> 둔촌동 앞쪽의 강은 漚湖였다.

여기서 많은 문인들의 호가 나왔다. 만년에 龍湖에 물러나 은거한 金縷, 용산에 無盡樓를 경영한 趙榮克 등이 호를 龍湖라 하였다. 金啓煥과 李春躋가

11) 여기서는 논의를 집중하기 위하여 한강 일대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외 지역도 함께 다룬다.

12) 유엄은 필자의 「유엄의 춘생와와 검재 정선의 그림」(『문헌과해석』 75, 2015)과 「유엄이 소개한 검재 정선의 금강산 그림」(『문헌과해석』 75, 2015)에서 소개하였지만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두남과 과강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서호편)』(경인문화사, 2016)를 참고하기 바란다.

13) 저자도가 중랑천이 한강과 만나는 곳에 형성된 모래섬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록이나 1915년 조선총독부의 실측지도 『朝鮮半島地圖集成』에 봉은사 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필자의 「조선후기 저자도의 문화사」(『국문학연구』 30집, 2014)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저자도에 살아서 호를 楮湖라 하였다. 權譚, 李安訥 등과 친분이 깊었던 具容의 별호 楮島 역시 그의 별서가 저자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黃德吉의 호 斗湖, 金應南의 호 斗巖은 모두 그들이 사랑한 강 이름에서 온 것이다. 또 마포를 이르는 三湖는 李德懋가 호로 삼은 바 있다. 尹新之, 趙繼韓, 李昭漢 등은 玄湖에 살아 玄洲를 호로 삼았다.<sup>14)</sup>

더욱 주목할 것은 통용되던 이름을 적절히 바꾸어 새롭고 우아한 의미를 투영한 점이다. 안양천이 한강과 만나기 전에 있는 신정동 일대는 예전에 堂谷이라 불렀는데 崔尙健이 살면서 箕簞谷이라는 운치 있는 이름으로 바꾸었다.<sup>15)</sup> 운당은 왕대를 이르는 말이다. 대나무 그림으로 이름을 펼친 송의 문인 文同이 蘇東坡와 시를 주고받은 揚州에 운당곡이 있기에, 흔한 이름 ‘당골’이 우아한 이 이름으로 바뀐 듯하다. 鄭叡의 그림으로 전하는 「綠雲灘」의 ‘녹운탄’도 우아한 이름으로 바뀐 예다. 녹운탄은 지금의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나루로 老溫灘으로 불렸다. 金昌翁이 “벼랑을 돌면 노운탄이 되는데 물길이 높 다랗고 급류가 사나우며 가운데 험한 바위가 많다. 바위가 개의 어금니처럼 어지러운데 바위에 부딪쳐 사나워진 물이 노하여 뛰어오르니 찬 포말이 사람에게 불어온다. 매우 겁난다.”라 한 곳이다.<sup>16)</sup> 정선은 이를 ‘푸른 구름 같은 여울’로 바꾸었다. 또 정선의 그림 「獨栢灘」의 ‘독백탄’도 유사하다. 김창흡이 簇栢湍, 簇尺灘, 簇尺灘이라 하였고 成海應은 이곳의 섬을 簇尺島라 하였다.<sup>17)</sup> 지금의 죽자도로, 두물머리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이다. 죽자도라는 촌스러운 이름이 독야청청한 잣나무 섬으로 바뀐 것이다. 음의 유사성을 활용하면서 훈독을 거꾸로 하여 이름을 바꾼 예라 하겠다.<sup>18)</sup>

14) 이들의 별서는 필자의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경인문화사, 2016)에서 다루었기에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아래 다루는 인물의 별서도 같다.

15) 李德壽, 「箕簞精舍記」(『西堂私載』 186:226). 崔尙健은 이덕수의 처남이다. 이덕수의 선조인 李濟臣의 아들 李命俊이 운당곡에 潛窩와 退思齋를 짓고 살았다.

16) 金昌翁, 「丹丘日錄」(『三淵集』 167:184). 이곳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水靑灘라 되어 있는데 靑灘이라고도 불렸다. 呂氏 집안의 세거지로 양근의 樵夫로 알려져 있는 시인 鄭鳳이 이곳에 살았다. 丁若鏞의 벗 呂東根의 호 靑灘도 이곳을 이른다.

17) 成海應, 「東水經」(『研經齋全集』 277:254).

18) 「독백탄」과 「녹운탄」이 죽자도와 노운탄이라는 것은 최완수, 『검재 정선 진경산수도』(범우사, 1993)에서 밝힌 바 있다.

서울의 瑞草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바뀐 이름이다. 1915년과 1916년에 측량된 『조선반도지도집성』과 최근 지도를 맞추어 보면 지금의 서리풀공원 동쪽 마을이 盤浦리고 그 남쪽 마을이 霜草里다.<sup>19)</sup> 그런데 ‘盤’이 서린다는 뜻이니 盤浦는 ‘서릿개’를 한자로 바꾼 것이고 ‘霜草’는 서리풀을 표기한 것이다. 서리 맞아 죽게 된 풀보다 상스러운 풀이 이름이 아름답기에 霜草 대신 瑞草가 된 듯하다. 아무튼 서초나 반포, 혹은 서리풀이 모두 같은 뜻을 알 수 있다.<sup>20)</sup>

서초리 남쪽에 明達里가 있는데 박달리라 불렀을 것이다. 특히 이곳에 명가의 별서가 많았다.<sup>21)</sup> 明村이라 줄여 부르고 羅良佐가 호로 삼았다. 그 부친 羅星斗의 호가 碁洲인데 반포 앞에 있던 섬 碁島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羅星斗의 사위가 된 金壽恒이 인근 반포에 별서를 마련하면서 반포라는 말 대신 盤溪 혹은 礪溪로 부르면서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礪溪는 周의 呂尙이 낚시를 하던 곳이므로, 은거하면서 세월을 기다린다는 뜻을 투영한 것이다. 金昌翁도 부친을 이어 이곳의 별서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한시를 제작하였는데 그 역시 盤溪와 함께 礪溪라 하여 은일을 지향함을 과시하였다. 지금의 대방동 앞쪽의 한강도 礪江 혹은 礪湖이라 하였다. 崔錫鼎은 樊大方洞 樊塘村에 거주하면서 그 앞의 한강을 礪江 혹은 礪湖라 부르고 이 시기의 시집을 『礪江錄』이라 하였는데 礪江이 그의 별칭으로 쓰였다.<sup>22)</sup> 최석정에게도 礪江이 姜太公의 마음을 담은 곳이다.<sup>23)</sup>

노량나루의 한강은 그 이름이 더욱 다채롭게 생겨나고 또 다양한 호로 사

- 
- 19) 지금의 서초동 일대가 霜草里인데 許篈 집안의 선산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들 집안의 별서는 필자의 앞 책에서 다루었다.
- 20) 草는 ‘풀’을 표기한 것인데 ‘밭’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인천의 이작도에 풀등이 있는데 ‘밭의 등’ 정도의 의미인 듯하다. 난지도를 예전 中草島라 하였는데 역시 ‘밭’의 뜻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21) 南龍翼의 「訪霜草族弟羅平康良佐家醉歸，追次其季碩佐韻」(『壺谷集』 131:76)을 보면 명달리 지역 역시 霜草에 포함되어 불렀음을 알 수 있다. 孝寧大君, 尙震 등의 묘가 남아 있고 지금도 도로명이 명달로다.
- 22) 趙泰億의 「寄程礪江」(『謙齋集』 189:31)로 볼 때 礪江은 崔錫鼎의 호로 쓰인 것이 분명하다. 변당촌은 『서울지명사전』에는 우리말로 변당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는데 그 유래는 밝혀져 있지 않다.
- 23) 柳馨遠의 礪溪는 扶安의 愚礪洞에서 나온 것인데, 그 지향은 다르지 않다.

용되었다. 鷺梁江 혹은 露梁江, 줄여서 鷺江 혹은 露江, 鷺湖 혹은 露湖라고 적었다. 이 인근에 살았던 李陽元이 鷺渚라는 호를 사용하였다.<sup>24)</sup> 그런데 吳熙常은 노량나루 남쪽에 少波亭을 경영하면서 호를 老湖 혹은 老洲라 하였다. ‘이슬’의 강도 아니고 ‘해오라기’의 강도 아닌 ‘늪은이’의 강이 된 것이다. 또 洪直弼은 강 건너 현석동에서 노량나루 남쪽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집 이름은 蘆漪精舍라 하고 방은 博厚室이라 하였으며 다락은 高明樓라 하고 그 마을은 蘆漪村이라 하였다. ‘노의’는 갈대가 있는 물가라는 뜻이니 노랑진 모래톱을 이렇게 바꾼 것이다. 先秦時代의 「漁父歌」 “자네와 갈대 있는 물가에서 기약하네(與子期乎蘆之漪)”라 한 뜻을 담기 위해 노랑의 해오라기 혹은 이슬이 다시 갈대로 바뀐 것이다. 벗 任憲晦가 蘆漪精舍로 옮겨 살면서 蘆漪가 그의 호로 불린 바도 있다.

흑석동의 黑石江은 검은 돌이 많아 생긴 이름인데 검다는 뜻에서 黎湖라고 하였고 또 음만 빌려 琴湖라고도 하였다. 이곳 望宸樓에 기거한 朴弼周의 호 黎湖,<sup>25)</sup> 그리고 琴湖精舍를 짓고 산 李晚秀의 별호 琴湖가 이렇게 하여 등장한 것이다. 金碩臣의 그림 「琴湖翫春」이 바로 국립현충원 서쪽에 있던 그의 별서 秋水樓와 介石亭을 그린 것이고 여기서 이른 琴湖가 바로 흑석동 앞의 한강을 이른다.<sup>26)</sup> 흑석동 바로 곁 동작나루의 한강을 銅雀江 혹은 銅湖라 불렀는데 이 역시 한자 표기가 바뀌었다. 후한의 은사 嚴光이 桐江에서 낚시로 세상을 마친 고사가 유명하기에 桐江으로도 불리면서 은자의 공간을 표방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 별서가 있던 李世弼의 호 桐湖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sup>27)</sup>

24) 『정조실록』(1790년 12월 7일)에 따르면 배다리의 晝停所를 지으려고 하는 곳이 이양원의 집터로, 그가 노랑에 살면서 노저를 호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龍驤鳳翥亭이 이양원의 별서 자리에 세워진 것이라 하겠다.

25) 박필주는 젊은 시절 남대문 곁에 거주하여 호를 晨門이라 하였으며, 도성 안 우대에 살아 雨臺라는 호도 사용하였다.

26) 李麟祥 등이 남산의 墨洞 곁으로 흐르는 개울을 玄溪라 부른 것 역시 비슷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돌베개, 2018)에서 밝혔다.

27) 동작나루 인근에 蒼梧灘이라는 여울이 18세기 무렵부터 보이는데 桐江에 짝을 맞추어 만들어 낸 표현인 듯하다. 沈攸의 호 梧灘이 蒼梧灘을 이므로, 蒼梧灘 혹은 梧灘은 그로부터 비롯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朴東亮의 호 梧窓도 여기에서 유

용산도 그 이름의 표기가 달라지면서 문인의 호로 활용되었다. 용산은 18세기 후반 徐命膺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 芙蓉江, 蓉湖 혹은 蓉洲, 蓉江으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는 용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지만 고려시대에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여름이 되면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 풍광이 더욱 아름다웠는데, 忠肅王이 이곳에 장막을 치고 감상하곤 하여 御幕峴이라 부른 고사가 있다.<sup>28)</sup> 서명응이 이름을 바꾼 것은 이 고사를 복원한 것이라 하겠다. 徐有渠의 『蓉江避暑集』이 이곳에서 지은 시를 모은 것인데 이 무렵 자신의 호도 芙蓉子 혹은 蓉洲子라 하였다.<sup>29)</sup>

또 鹽倉이 있던 염창동 앞쪽은 소금 대신 맑음을 넣어 濂湖로도 불렸다. 인근에서 세거하던 黃德吉은 “염호의 북쪽은 澄山인데, 염호 金孝子の 선산이 있다. 그 남쪽 기슭에 望斗亭 터가 있는데, 재상을 지낸 충정공의 별서로, 5세손 童蒙教官이 받들어 지키고 있다.”라 하였다.<sup>30)</sup> 여기서 동몽교관은 이 일대에서 세거한 金應南의 후손 金嵩濟를 가리킨다. 그의 호가 濂湖다. 띄어쓰처럼 생긴 甌山은 澄山으로, 마을은 濂村으로 바뀐 것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행주산성 앞쪽은 杏湖 혹은 杏洲라는 운치 있는 이름으로 한자를 바꾸었는데 정선의 「杏洲觀漁」가 바로 이 일대의 풍광을 그림에 담은 것이다. 杏湖逸人 金顯行, 杏浦 金善行, 幸隱 金時佐, 杏村 閔純 등이 모두 행주에 살았기에 호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처럼 지명을 우아한 이름으로 바꾸고 이를 호로 삼은 것은 그리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李滉이 兔溪를 退溪로 바꾸어 호로 삼고 陶山이라는 이름의 산기슭에서 수양에 힘썼다. 토끼의 형상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兔溪가 退溪로 변하면서 ‘물러나는 개울’이라는 학자의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陶冶의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陶山과도 호응하게 된 것이다.<sup>31)</sup> 스스로 즐겨 사용한 退

---

래하는 듯하다. 毛老里灘이라는 여울이 있다고 하였는데 같은 곳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다.

28) 徐有本の 「江居雜詠十」(『左蘇山人集』 b106:7)에 따르면 자신의 집 뒷산 중턱에 백여 인이 앉을 만한 넓은 터가 바로 장막을 친 곳이라 하였다. 비슷한 내용이 『동사강목』에도 보인다.

29) 金碩臣의 그림 「澹澹雅樂」에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마을로 추정되는데, 지금의 용산전자상가 인근이다.

30) 黃德吉, 「贈童蒙教官金公墓誌銘并序」(『下廬集』 260:484).

31) 李滉은 「陶山雜詠」(『退溪集』 29:102)에서 陶山은 산이 겹으로 되어 있어 생긴 이

陶라는 호는 더욱 이러한 의미를 강하게 한 것이라 하겠다.

南龍翼의 호 壺谷도 이와 유사한 과정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南龍翼은 자신의 집안이 세거하던 수락산 기슭의 陶谷을 東海谷이라고도 하는데, 사방이 넓게 두르고 있고 집의 형세가 호젓하여 도성 근처 이름난 땅 중 최고로 자신의 의령 남씨가 누대에 걸쳐 주인이 되어 나서 살고 죽어 묻힌다고 한 바 있다.<sup>32)</sup> 東海는 우리말 ‘동해’를 한자로 옮긴 것이다. 이를 보면 동이골은 당시 표기에 따라 東海谷, 陶谷으로 불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용익의 호 壺谷은 신선이 사는 땅 壺中天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동이골을 바꾼 것이라 하겠다.

### III. 땅의 이름을 변용한 우아한 집의 이름

앞서 본 예는 한자를 적절히 바꾸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의 지명에서 유추하여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조선반도지도집성』에 잠실대교 북단 서북쪽 기슭에 栗里라는 마을이 보인다. 이를 보면 陶淵明이 살던 율리와 같은 이름의 마을이 있었기에 그 앞쪽 한강을 陶湖, 곧 도연명의 강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陶湖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를 호로 삼은 사람은 趙景命이다. 조경명은 이곳에 歸樂亭을 경영하고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息遊菴, 審安堂, 岵雲樓, 盤桓壇, 日涉園, 松菊徑, 清流塘, 告春門 등의 이름을 붙였다. 같은 마을에 나란히 살았던 宋成明 역시 陶湖尙書로 불렸는데 그 역시 宋石軒 외에 陶湖를 호로 삼은 바 있다. 鄭歡이 양천현감으로 있던 1740년 무렵 그린 「廣津」의 앞쪽 한강이 陶湖다. 조경명과 송성명의 시기에 陶湖라는 말이 비로소 보이니 이들에 의하여 이름이 생긴 것이라 하겠다.

밤골을 이르는 栗里는 도처에 있었다. 洪柱國은 “상서 金光煜의 전장 이름은 栗里莊이고 綾豐 具仁堦의 집은 竹里館이니 그 땅 이름이 陶淵明과 王維가

---

름이라는 설과 질그릇을 가마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는 설을 나란히 제시한 바 있다. 陶는 두 산이 포개져 있는 것을 이르는 글자다.

32) 남용익, 「景白齋記」(『壺谷集』 131:340).



별서를 짓고 이름을 붙인 것과 부합한다. 내가 울리에서 죽리로 이주하였는데 듣자니 두 사람이 그곳으로 왕래한 적이 없다가에 장난으로 그 벽에 쓴다.”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다.<sup>33)</sup> 와우산 기슭 지금의 상수동에 竹里라는 마을이 있어 具仁璧는 王維가 輞川에 장만한 竹里館이 있기에 자신의 별서도 竹里館이라 이름 하였고 竹里를 호로 사용하였다. 또 金光燬은 행주산성 곁 栗里로 물러나 陶淵明의 뜻을 표한 歸來亭을 경영하였다. 19세기 金履喬 역시 竹裏館<sup>34)</sup>의 주인이었는데 호를 죽리자라 한 바 있다.

이처럼 조선의 문인들은 지명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 이름을 우아하게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姜世堧도 같은 방식으로 서빙고의 屯智山<sup>35)</sup>을 屯山 혹은 芝山이라 고치고<sup>36)</sup> 그곳의 별서를 屯山別榭, 芝山郊榭라 하였다. 또 둔지산이라는 밋밋한 이름을 변형하여 구름이 머무는 못 곁에 있는 정자라는 逗雲池亭을 세웠다.

도성의 남대문을 나서 꺾어져 조금 동쪽으로 10리 못 미친 곳에 둔지산이 있다. 봉우리와 바위, 골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산이라는 명칭이 있고 屯田을 둔 땅이 없지만 둔전의 땅이라는 이름이 있다. 이는 정말 따져 힐난할 것은 되지 못한다. 들길이 구불구불하고 보리밭 두둑이 높았다 낮아지는데, 마을 수백 가가 있다. 두운지정은 그 서북쪽에 걸터앉아 있다. 기와 수십 칸 인데 대략 앉거나 누울 정도는 된다. 작은 누각 한 칸이 크고 작은 두 개의 못을 내려다보고 있다. 연꽃을 심고 물고기를 키운다. 수양버들을 빙 둘러 심었다. 앞으로 관악산과 동작나루를 마주하고 있다. 첩첩의 봉우리가 병풍을 친 듯하고 흰 모래가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다. 뜰에는 여러 가지 꽃을 심고 동산에는 밤 숲을 두었다. 가끔 너무 고운 들꽃은 뽑아내고 비린 물고기는 건져서 버리노라면, 정말 긴긴 날 소일거리가 되고 남은 생애를 보낼 만하다. 내 나이 이미 일흔이 넘고 여든을 바라본다. 온갖 근심에 마음이 어두워지면

33) 洪柱國, 「金尙書光燬莊名曰栗里, 具綾豐仁璧, 館名曰竹里, 以其地號適符於陶徵君, 王右丞別業而名之也. 余自栗里移居竹里, 聞二亭主人, 未嘗來住, 戲題壁上」(『泛翁集』 b36:192).

34) 王維와 관련한 기록에서도 竹里, 竹裏가 혼용되었다.

35) 屯智山은 屯知山, 屯之山, 屯地山 등 다양하게 표기하였다. 屯地尾라고도 하였는데 屯芝尾, 屯芝味, 屯之美, 屯地尾 등 다양한 표기로 나타난다.

36) 元在明의 호 芝汀도 둔지산의 물가라는 뜻인 듯하다. 그의 별서 二可亭이 이곳에 있었다.

이곳에 돌아와 눕는다. 또한 내 처소를 얻었다고 할 만하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긴긴 하루에다 이튿날까지 계속 조용히 앉아 있으면 늘그막의 소득이 어찌 많지 않겠는가!

강세황, 「두운지정의 기문(逗雲池亭記)」(『豹菴稿』 b80:375)

강세황은 둔지산의 둔지를 逗雲池로 변형하였다. 두운지는 구름이 머무는 못이다. 당의 시인 孟浩然이 「천태산 동백관에 묵으면서(宿天台桐柏觀)」에서 “바닷길은 바람 받는 돛에 맡기고, 저녁에는 구름 머무는 섬에서 자노라(海行信風帆 夕宿逗雲島)”라고 한 운치를 빈 듯하다. 큰 못과 작은 못 둘을 조성하고 물고기를 키우고 연꽃을 심었으며 수양버들로 에워싸게 만들었다. 두운지정은 기와를 인 그리 크지 않는 건물이지만 일흔이 넘는 나이 노년의 한가함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강세황은 구름이 못에 머무는 두운지정을 줄여서 逗雲亭이라 하였는데 1784년 3월 이 별서를 그림으로 그려 길이가 기억될 수 있게 하였다. 별서 전체를 그린 「逗雲亭全圖」 외에 부채에다 정원의 다양한 꽃과 바위, 그곳의 풍류를 그림으로 그렸다. 안타깝게 대부분의 그림은 사라지고 두운지정에서 삼각산을 보고 그린 「南山與三角山圖」만 전한다.<sup>37)</sup> 또 두운정에서 배를 띄우고 노닐면서 강가의 정자를 그린 그림도 전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방식으로 땅의 이름을 바꾼 사례는 조선시대 문인의 글에서 자주 보인다. 李德壽는 楊根에 操舟亭을 짓고 “濱陽郡(양근)에서 강을 따라 내려오면 골짜기가 그윽한데 북쪽은 막혔고 남쪽은 트여 있다. 빼어난 강산과 원림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上心이라 부른다. 내 생각에는 반드시 옛사람이 이

37) 姜世晃, 「甲辰三月, 出仕芝山郊樹, 長日無事, 偶得十六扇子, 漫畫亭園即景及花卉禽虫, 仍各題其上, 逗雲亭全圖」(『豹菴稿』 b80:347)와 함께 「畫扇樓前面圖」, 「畫扇樓側面圖」, 「畫扇樓東面圖」, 「畫扇樓西面圖」, 「屋後北眺圖」, 「芍藥圖」, 「蘭草圖」, 「竹圖」, 「紅梅花圖」, 「桃花圖」, 「月桂圖」, 「太湖石圖」, 「枝頭小雀圖」, 「林居秋景圖」, 「山亭松石遊人往來圖」 등을 두고 지은 시가 나란히 실려 있다. 「南山與三角山圖」에 적힌 시는 「屋後北眺圖」다.

38) 「갑진년 윤삼월 두운정에서 노랑의 강가로 나가…(甲辰潤三月, 自逗雲亭出驚江邊)」라는 제발이 붙은 강세황의 그림이 북한의 평양박물관에 전한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이종목, 「경강의 그림 속에 살던 문인, 그들의 풍류」(고동환 외,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2018)에서 다루었다.

렇게 이름 붙인 의미가 있을 듯하다. 강물이 서쪽으로 흘러 大灘<sup>39)</sup>이 되는데 험하기로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다. 아래위로 노를 저어 지나가는 이들이 배를 모는 기술을 다 발휘하려 하였으므로 이름을 傷心이라 하였는데 음이와 전된 것이다. 내가 북쪽 기슭 아래 깔끔한 집을 지어 귀거래하여 늙을 계획을 삼았다. 땅 이름을 觴心으로 바꾸고 그 정자를 操舟亭이라 하였다.”라는 기문을 붙였다.<sup>40)</sup> 세상이 험한 바다인데 자신이 배를 몰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여러 번 전복할 뻔하였다고 하고 글을 이어나갔다. “큰 물결이 산과 같고 작은 물결도 집채만 한데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흥흥하게 분탕질하는 소리 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옆으로 찢어지고 위로 솟구치는 모습뿐이다. 물귀신과 물고기들이 또 곁에서 힐끔힐끔 엿보고 있어 그 두려움이 이와 같다. 내가 겁이 나 마음이 그 때문에 쿵쥔거렸다. 하루라도 잠시 편한 적이 없으니, 배를 잘 오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적이 많다. 게다가 잠수하는 사람들이 심연을 언덕처럼 보고 배를 수레처럼 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내가 이 정자에 누우니 세상을 마치 잊은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상심이 라는 마을을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라는 우아한 이름으로 바꾸고 세상을 조용히 살아가겠다는 뜻을 붙였다.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의 이름을 바꾸면서 삶의 자세를 다잡은 예는 韓百謙에게서도 확인된다. 난지도는 『동여도』(규장각본) 등 조선 후기 지도에는 中草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물가 마을을 水生里라 하였다. 수생리는 水色里, 곧 지금의 수색동이다. 이 지도에는 수생리 아래에 城山里가, 그 안쪽에 甌山里도 보인다. 정조가 1788년 가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조처를 적은 『加髭申禁事目』을 배포할 곳으로 성산리, 증산리, 수색리와 함께 鵠巖里(후대에는 休巖里로 나온다)가 보인다. 휴암리라는 이름으로 보아 부영이 바위가 있었고 오늘날 상암동은 그 위쪽 마을이라는 뜻에서 나온 듯하다. 정선의 그림 「錦城平沙」에서 가장 좌측에 그려진 마을이 수생리로 추정된다. 지금의 수색동은 수색리, 수생리로 다르게 나타나거니와 그 마을 이름도 勿移村, 水伊村 등 여럿이다. 그렇지만 그 근원은 다르지 않다. 그 곁의 상수동은 上水湓里라 불

39) 대치와 한티의 관계를 생각하면 대탄은 한탄이라 불렀을 것이다. 한탄강과 한강의 ‘한’도 모두 ‘大’의 뜻이다.

40) 李德壽, 「操舟亭記」(『西堂私載』 186:243). 이덕수의 별서는 『조선의 문화공간』(휴머니스트, 2006)에서 다루었다.

렸는데, ‘水溢’은 물이 넘친다는 뜻의 ‘무너미’인데 수유동의 水踰도 같은 데서 나온 말인 듯하다. ‘수생’ 역시 이와 비슷한 ‘무너미’였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그곳에는 물이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水伊村, 水移村으로도 썼지만 물이촌이라 읽었다. 『조선반도지도집성』에서 성산리 서북쪽에 보이는 武夷洞이 바로 이곳일 것이다. 물이 자주 넘치는 이름보다는 도가의 성지이면서 朱子가 인연을 맺었던 武夷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이 이름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바로 이 수생리에 韓百謙과 蔡彭胤이 살았다. 한백겸은 1610년 호조참의로 있던 중 모친상을 당하였다. 느지막이 시작한 벼슬길인 데다 벼슬살이 자체를 즐기지 않아 물러나 살고자 하였다. 마침 물이촌에 전장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柳川子 韓浚謙이 형을 위하여 땅을 떼어 주었다. 이에 한백겸은 그 마을 이름을 勿移村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집의 이름을 久菴이라 하였다. ‘구암’과 ‘물이’를 합하여 오래도록 은거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그 곁에 대나무 수백 그루를 심었으니 다시 대나무의 곧은 정신을 배우려 한 것이었다.

서울의 진산인 삼각산이 북으로 한 자락 뻗어나가 큰 길을 넘어 서쪽으로 굽어질 듯 말 듯 누울너울 이어 나가다가, 물을 만나면 멈추고 기가 멎쳐 언덕이 되고 빙 둘러 곶이 되는데, 이곳이 촌락의 주거지다. 한강이 동남에서 흘러와 용산을 지나 喜雨亭 아래에 이르면 넘실넘실 두 갈래 물로 나누어진 다. 그 큰 줄기는 기세가 넓고 깊은데 서쪽 강안을 따라 북쪽으로 가서 곧장 바다로 나아간다. 또 한 줄기는 동쪽으로 꺾였다가 서쪽으로 휘어 굽이굽이 돌아 마을의 동구를 안고 흘러가는데 10여 리쯤 가서 행주성 아래 이르러 다시 큰 강과 합쳐진다. 두 강 사이에 섬이 있어 삼각주를 형성하는데 벼와 기장이 무성하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늘 물을 건너 왕래하면서 경작을 한다. 그 이름을 水伊村이라 한다. 여름과 가을이 교차할 때마다 장맛비로 물이 크게 불면 두 강이 합쳐져 바다처럼 넓어지고 물빛이 하늘에 이어지는데, 마을 이름이 아마도 이 때문인 듯하다.(중략)

이에 수이촌을 勿移村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말로 글자의 음이 같기 때문이다. 그 집에 편액을 달아 久菴이라 하였으니, 예전 호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뜻을 붙여 장차 은거하여 생애를 마칠 참이다. 오래가도록[久] 바꾸지[移] 않을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아, 선비가 제 일을 바꾸고 백성

이 그 거처를 옮기는 것은 모두 혈기가 왕성하여 다른 것을 그리워하는 데서 연유한다. 이제 내가 늘그막에 이승을 떠날 때 되니 만사가 흐트러졌다. 앉으면 서는 것을 잊고 누우면 일어날 것을 잊는다. 그러니 할 일을 바꾸어 무엇을 구하겠으며, 거처를 옮겨 어디로 가겠는가? 오직 바꾸지 않는 것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도다. 오래가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즐겁다. 즐거우면 그만두려 해도 되지 않는 법이라 비록 바꾸려 하더라도 또한 될 수 없을 것이니, 내 몸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글을 적어 내 뜻을 보인다.

한백겸, 「물이촌 구암의 기문(勿移村久菴記)」(『久菴遺稿』 59:180)

한백겸이 세상을 떠난 후 물이촌에는 후손들이 세거하였지만 이곳을 글로 더욱 빛낸 사람은 외손으로 연결되는 蔡彭胤이다. 그는 물이촌을 水村이라 부르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竹枝詞처럼 읊었다. 그리고 ‘구암’과 ‘물이촌’의 정신을 사모하여 자신의 집을 勿貳巢라 하였다.

수촌은 서호의 북쪽에 있는데 장인의 전장이 있다. 원편으로 꺾어져 10리 먼 곳이 도성의 숭례문이다. 그 앞은 큰 강이다. 처음 구암 한 선생이 계씨 서평 상공에게 작은 전장을 얻어 북쪽 언덕 아래 구암을 지었다. 대나무 수백 포기 있는데 선생이 직접 심은 것이다. 세월이 오래 흘러 구암은 무너졌고 노비들이 빙 둘러 거주하게 되었다. 병인년(1686) 내가 이곳에서 초례를 치르고 인하여 선생이 지은 「구암기」를 구해 읽었다.(중략)

마을 이름이 예전에는 水伊였는데 선생이 이를 좋아하여 勿移로 바꾸고 오래 바뀌지 않으면 오래 간다 하여 그 집 이름을 구암이라 한 것이다. 이제 나는 선생을 사모하는 사람인지라, 그 뜻에 인하여 다시 勿貳巢라 썼으니, 달라지지 않으면 한결같으니, 이 때문에 내 등지의 이름으로 삼는다.

채팽윤, 「수촌의 수계 서문(水村脩稷序)」(『希菴集』 182:414)

勿貳巢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한결같아지는 조그만 집이라는 뜻이다. 勿移는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채팽윤은 『서경』에 보이는 「任賢勿貳」 곧 현자에게 맡기고 딴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유래를 찾아 그 집을 물이소라고 하였다. 물론 원래의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초심을 잃지 않아 절조를 지키겠노라는 다짐의 뜻을 표방한 것이다.

牛耳洞에 있던 洪良浩의 별서도 땅의 이름을 응용하여 집의 이름을 우아하게 지은 예다. 兼山樓와 小歸堂 등의 이름이 그러하다. 홍양호는 진고개에 京

邸 四宜堂을 경영하였는데 그 거처를 泥窩라 하고 스스로 호를 泥厓子라 하였다. 그리고 별서가 있던 우이동의 개울 牛耳溪를 泥厓에 짝을 맞추어 耳溪라 하였다. 耳溪에는 小歸堂을 두었다. 「小歸堂記」에서 늙어서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이 大歸인데 환갑이 되지 않았음에도 병들어 일찍 물러났기에 작게 물러나는 집인 소귀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 하였다. 사변적인 논리를 제시하였지만 소귀당의 ‘소귀’가 ‘牛耳’를 번역한 것이기도 하다.<sup>41)</sup> 홍양호는 이러한 뜻을 담은 기문을 다시 지어 붙였다.

저 뿔이라는 것은 성질이 강하고 귀는 성질이 부드러운데 어찌 강한 것이 꺾이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갈 수 있는가? 뿔의 형상은 위가 뽕족하고 귀의 형상은 아래로 처져 있는데 어찌 위에 있는 것이 빠터지고 아래에 있는 것이 온순할 수 있는가? 뿔은 촉각을 맡고 귀는 청각을 맡는데 어찌 촉각이 힘을 맡겨두고 청각이 지혜를 맡겨둘 수 있는가? 내가 이에 桓公이 文公의 霸業이 부드러움으로 대중을 화목하게 하고 온순함으로 높은 분을 섬기며 지혜로움으로 승리를 생각한 데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海東에 산이 있어 삼각산이라 하는데 삼각산 아래 골짜기가 있어 우이동이라 한다. 산은 角이라 하고 골짜기는 耳라 하는데, 뿔을 가진 자가 귀를 가진 것이리라! 산이 위에 있고 골짜기가 아래에 있어 뿔이 위를 좇고 귀가 아래를 좇는 것이리라! 산이 높아 우뚝 뿔과 같은 것은 위엄의 상징이요, 골짜기가 비어 귀처럼 숨겨져 있는 것은 포용의 상징이다. 위엄으로 먼 곳까지 복속하고 포용으로 만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군자의 상일지라!

홍양호, 「우이동장기(牛耳洞庄記)」(『耳溪集』 241:221)

三角山 아래 牛耳洞의 집터에 대해 삼각산의 뿔과 우이동의 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위로 뿔의 위엄과 아래로 귀의 포용을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군자의 집으로 삼을 만하다 하였다. 「小歸堂記」에서 “소귀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돌아가는 것인데, 음은 작고 양은 크므로, 작은 것이 돌아가면 큰 것이 돌아온다.”라 한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신 살이라는 치사하기에는 이른 나이에 잠시 귀거래하여 소의 귀를 통해 부드러움과 온순함, 지혜로움을 길러 훗날 큰 뜻을 이루겠다는 뜻을 표방한 것이라 하겠다.<sup>42)</sup>

41) 홍양호, 「小歸堂記」(『耳溪集』 241:222).

42) 홍양호의 별서는 필자의 『조선의 문화공간』(휴머니스트, 2006)과 「서울 동북 지

黃德吉이 桃渚洞을 柳渚洞으로 바꾸고 廬室이라는 집을 둔 것도 이러한 방식의 삶을 보여준다. 황덕길은 양천의 魯谷에 살다가 1776년 가을, 지금의 서울역 건너 남산 기슭인 桃渚洞에 잠시 살았다. 그곳은 원래 복사꽃이 많아 이러한 이름이 붙었는데 황덕길이 살던 무렵에는 복사꽃이 사라져 대신 버드나무 10그루를 심고 동네 이름을 도저동 대신 柳渚洞이라 하고, 밭은 柳圃, 마을은 柳北村이라 하였다. 시원한 바람을 맞이들이는 창을 바람이 불어오는 창이라는 뜻의 風來牖이라 하고, 기대어 조는 벽을 개울을 베고 있는 벽이라는 뜻의 沈流壁이라 하였으며 이를 합쳐 廬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sup>43)</sup> 결국 五柳先生 陶淵明의 삶을 투영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러한 이름 바꾸기를 시도한 것이다. 물론 황덕길 외에 도저동을 유저동이라 부른 사람은 없었던 듯하지만, 그럼에도 지명을 자신의 뜻에 따라 바꾸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진 丁若鏞의 삶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은 생가 興猶堂이 있는 곳을 菴川이라 적었다. 興猶堂 앞쪽 팔당호에 소내섬이 있으니 菴川은 소내라 읽었을 것이다. 또 소내섬은 광주시 남종면 우천리에 속하니, 소내는 瀟川, 牛川 등으로도 적는다. 興猶堂 건너에 살았던 申靖夏의 호 牛川이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소내를 두고 인근에 살던 金埈은 瀟川이라 하여 瀟湘八景의 배경이 된 瀟水를 끌어들이었다. 申靖夏가 牛川과 함께 菴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菴川을 가장 즐겨 쓴 사람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린 그림은 「菴溪圖」라 하였다. 菴溪은 靑溪와 병칭되는데 당의 은자 張志和가 顏真卿에게 “나의 소원은 배를 집 삼아 물 위에 살면서 菴溪와 靑溪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고사가 있으니, 소내를 菴溪로 연결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菴溪를 자신의 호 중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정약용은 소내를 菴上이라고도 적었는데 같은 뜻이다. 정

역의 문화 유산 홍양호와 홍경도의 글로 남은 우이구곡의 기억」(『인문과학연구』 16, 2011)에서 다룬 것을 논지에 맞게 요약하였다.

43) 황덕길, 『柳北僑居記』(『下廬集』 260:433). 이 글에 따르면 남산 서쪽에서 발원한 개울이 蟾巖에 이르러 몇 길의 폭포가 되고 북으로 꺾여 蔓草川 좌측 지류가 되는데 곧 桃渚洞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도저동은 지금의 厚巖洞임이 분명하다. 그곳에 두텁바위[蟾巖]가 잘못 이해되면서 후암동이 되었다. 필자의 위 책에서 이 지역을 다룬 바 있다.

약용은 張志和의 浮家汎宅을 본떠 자신의 집 이름을 菴上煙波釣叟之家라 하였다. “나는 적은 돈으로 배 하나를 사서 배 안에 어망 너덧 개와 낚싯대 한두 개를 갖추어놓고, 술과 잔, 소반 같은 먹거리에 필요한 갖가지 기구를 준비하며, 방 한 칸을 만들어 온돌을 놓고 싶다. 두 아이에게 집을 지키게 하고, 늙은 아내와 어린아이 및 어린 중 한 명을 이끌고, 물에 떠다니면서 살림을 하고 사는 배라는 뜻의 浮家汎宅에서 수종산과 소내 사이를 왕래하면서 오늘은 粵溪의 연못에서 고기를 잡고, 내일은 石湖에서 낚시질하며, 또 그 다음날은 門巖의 여울에서 고기를 잡으리라.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서 잠을 자고 마치 물결에 떠다니는 오리들처럼 동실동실 떠다니다가, 때때로 째막째막한 시가를 지어 스스로 기구한 정회를 읊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라 하였다.<sup>44)</sup> ‘소내’라는 별것 아닌 이름을 바꾸어 이러한 우아한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이다.

####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강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지명을 자신의 뜻에 맞추어 우아하게 바꾸고 이를 호로 삼은 예와, 이에 맞추어 집의 이름으로 삼은 예를 살폈다. 용산에서 龍湖와 蓉洲가, 마포에서 三湖와 三洲가, 저자도에서 楮湖와 楮島가, 반포에서 磻溪와 磻江이, 노량에서 鷺渚와 老湖, 老洲, 蘆漪가, 흑석에서 琴湖와 梨湖가, 동작에서 桐湖가, 염창에서 濂湖가, 행주에서 杏湖와 杏浦, 杏村, 幸隱 등의 호가 만들어졌다. 梧灘과 梧窓, 巴江과 斗湖 등도 모두 한강의 별칭에서 나온 것이다. 또 陶淵明이나 王維 등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기 위해 광나루를 陶湖라 하고 집의 이름을 栗里莊, 歸樂亭, 歸來亭, 竹里館 등이라 붙였으며 久菴과 勿貳巢처럼 지명을 바꾸어 삶의 방향을 투영하면서 이러한 집의 이름을 다시 호로 사용하였다.

그간 역사지리나 언어학 분야에서 지명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제 지명의 유래와 함께 그 변형된 양상까지 살피면서, 문인들이 살아간 땅의 구체적인 역사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밝히지 않은 많은 문인들의

44) 정약용, 「菴上煙波釣叟之家記」(『與猶堂全書』 281:301)



호가 한강의 특정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崔有淵은 玄巖, 玄石인데 바로 마포의 현석동에 살았기 때문이다. 朴世采의 호 玄石도 같으며 權輶의 호 石洲도 현석동에서 나온 것이다. 李好閔의 아들 李景嚴이 현석동에 살았기에 호가 玄磯이다. 현석동에 살던 문인들이 이렇게 많았고 또 여기서 유래한 호도 이렇게 다양하다. 또 趙裕壽는 호가 后溪인데, 이는 응봉 기슭에 있던 小湫玉亭의 개울이름이며,<sup>45)</sup> 학여울에 살았기에 趙泰億의 호는 鶴灘이다. 金鍾秀의 호 夢梧는 이들 집안의 선영이 있던 송파의 夢村과 梧琴을 합쳐 만든 것이다.<sup>46)</sup> 둔촌동 앞쪽의 한강은 滬湖라 하였는데, 任守幹은 자신의 집 이름을 遯窩와 遯齋라 하여 遯世無悶의 뜻을 더욱 강하게 넣었다.<sup>47)</sup> 이들의 삶에서 자신의 호가 가리키는 공간의 의미가 작을 리 없다.

이처럼 지명 연구는 문인의 삶을 특정 지역과 구체적으로 연결하여 살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명 연구가 문학이나 문화사의 영역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5) 조유수, 「后溪歌疊畝字」(『后溪集』 b55:80)에서 “名溪曰后遂自號”라 하였다.

46) 金鍾厚, 「從子墓誌銘并序」(『本庵集』 237:490)에 따르면 夢村梧琴碑가 있었는데 몽촌과 오금이 이 집안의 선산임을 드러낸 것이다.

47) 任守幹, 「遯齋記」(『遯窩遺稿』 180:296).

## 참고문헌

- 姜世晃, 『豹菴稿』(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姜希孟, 『私淑齋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金鍾厚, 『本庵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金昌協, 『農巖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金昌翁, 『三淵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南龍翼, 『壺谷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徐有本, 『左蘇山人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成海應, 『研經齋全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宋時烈, 『宋子大全』(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德壽, 『西堂私載』(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德壽, 『西堂私載』(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春英, 『體素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李滉, 『退溪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任守幹, 『遯窩遺稿』(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丁若鏞, 『與猶堂全書』(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正祖, 『弘齋全書』(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趙裕壽, 『后溪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趙泰億, 『謙齋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蔡彭胤, 『希菴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韓百謙, 『久菴遺稿』(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洪良浩, 『耳溪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洪柱國, 『泛翁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黃德吉, 『下廬集』(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DB)
- 고동환 외, 『경강, 광나루에서 양화진까지』(서울역사박물관, 2018)  
 박희병, 『능호관 이인상 서화평석』(돌베개, 2018)  
 이종묵, 「서울 동북 지역의 문화 유산 홍양호와 홍경모의 글로 남은 우이구곡의 기억」(『인문과학연구』 16, 2011)  
 이종묵, 「유엄의 춘생와와 겸재 정선의 그림」(『문헌과해석』 75, 2015)  
 이종묵, 「유엄이 소개한 겸재 정선의 금강산 그림」(『문헌과해석』 75, 2015)  
 이종묵, 「조선후기 저자도의 문화사」(『국문학연구』 30집, 2014)  
 이종묵,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경인문화사, 2016)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휴머니스트, 2006)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도』(범우사, 1993)